세상은 모두 眞如 하나의 모습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지관문(止觀門)의 수행은 결국 진여(眞如)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지관(止觀)을 성취하면 진여삼매(眞如三昧)를 얻는다.

본문에서는 이 진여삼매에 의해 법계가 하나의 모습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존재의 세계가 그 근본이 하나라는 사실을 삼매에 의해서 비로소 안다는 말이다. 이른바 부처님들의 법신이 중생들의 몸과 평등하여 둘이 아니므로 이를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 하였다. 일행삼매란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하나로 관상하는 삼매이다. 이 삼매의 근본이 바로 진여이다.

만약 누구라도 이 진여를 닦으면 차츰 차츰 한량없는 삼매가 생기게 된다.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그냥 그대로 깨달은 자의 진리의 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론에서는 이 삼매의 경지를 얻을 때의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魔)의 경계가 나타나 장애를 받는 경우다.

"혹 어떤 중생이 선근(善根)의 힘이 없으면 온갖 마군과 외도, 귀신들로부터 어지럽힘을 당하게 된다. 앉아 있는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어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때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면 경계가 곧 사라져, 마침내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혹은 천인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며 혹은 여래의 모습으로 상호가 갖춰진 채 나타나 다라니를 설하며, 혹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설하며 혹은 평등,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 무원(無怨), 무친(無親), 무인(無因), 무과(無果) 이어 필경에 공적(空寂)한 것이 진실한 열반이라 설하며,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숙명을 알게 하며, 또한 미래의 일도 알게 하며,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며, 말하는 솜씨가 걸림이 없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의 명예나 이익이 되는 일에 욕심을 부리게 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화를 내다가 자주 기뻐하게 하는 등 성격이 항상 안정됨이 없게 하며, 혹은 자애로운 마음이 많게 하며, 잠과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이 게을러지게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심을 일으켰다가 문득 그만 두게 하며, 불신의 마음을 내어 의심과 걱정이 많게 하며, 혹은 본래의 수승한 행을 버리고 잡된 일을 닦게 하며, 혹은 세상사에 집착하여 갖가지로 끌려 얽매이게 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삼매를 얻어 그럴듯하게 하게도 하나니 모두가 외도들이 얻은 바라 참된 삼매는 아니니라."

진여 닦으면 한량없는 삼매가
魔의 경계 나타남은 주의해야

선정을 닦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경(魔境)을 설해 놓은 대목이다. 〈능엄경〉 10권 가운데 9~10권이 전부 변마장(辨魔章)이듯 〈기신론〉에서도 마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魔)는 원래 마라(魔羅, Mara)를 줄인 말로 살자(殺者), 탈명(奪命), 장애(障碍) 등으로 한역했는데 악마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룰 때에도 마가 방해를 했다고 한다. 팔상도(八相圖)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라 말했다.

마(魔)가 나타나 천신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 심지어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 그럴듯한 법을 설한다. 육바라밀을 설하고 혹은 평등하고 텅 비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없으며, 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으며, 인과의 이치마저 벗어나 절대적으로 비워 고요하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열반이라 설하는 진짜 같은 그럴 듯한 사이비성 장면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한다.

또 지나간 옛일이나 미래의 일을 알며, 남의 마음을 알기도 하며, 변재가 자유자재하고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 하며, 성격이 괴팍스러우며, 무절제한 생활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정이 너무 많거나 잠이 많으며, 병이 자주 나며 그 마음이 게으르고, 혹은 갑자기 정진을 시작하다가 이내 그만 두고 신심을 잃어버려 의심과 걱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 또 수행을 잘 해 오다가 그것을 버리고 잡된 일을 시작하여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게 되어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삼매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참된 삼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비심 있는 보시만이 '涅槃樂'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㉜보시에 필요한 것은

菩薩思念。我於往昔三界尊前聞解脫極樂。我今已證。何以故。稱意而施æ 是解脫。若阿羅漢解脫樂與悲心所起施樂相似者。我則愛之。若不相似我則不愛。唯愛施樂以為解脫。悲心起施所得快樂無有比類˚無悲心施解脫之樂百千萬分不得為喻。悲心起施所得喜樂。若當可以喻為喻。最為極大。是故不可為喻。(보살사념。아어왕석삼계존전문해탈극락。아금이증。하이고。칭의이시즉시해탈。약아라한해탈악여비심소기시락상사자。아즉애지。약불상사아즉불애。유애시락이위해탈。비심기시소득쾌락무유비류。무비심시해탈지락백천만분부득위유。비심기시소득희락。약당가이유위유。최위극대。시고불가위유。)

번역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난 날 삼계에 존귀하신 분께 앞서 해탈의 극락에 대해 들었나니, 내가 지금 이미 증득하였노라.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의미인 즉은 보시가 곧 해탈을 칭하기 때문이라. 만약 아라한이 해탈로 즐겁다면, 더불어 자비심을 일으켜 보시하는 즐거움이 같은 현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곧 사랑하노니, 만약 같은 현상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으리라. 오로지 사랑과 보시의 즐거움으로써 해탈을 삼으리라."합니다. 자비심으로 일으키는 보시라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니, 비유할 종류가 없습니다. 자비심의 보시 없이도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백천만 분의 비유도 되지 못합니다. 자비심을 일으킨 보시라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니, 만약 마땅한 비유로써 비유를 삼을라치면 최상이어서 지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비유를 삼기에 불가능합니다.

해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자 한다. 깨달은 이에게는 번뇌를 벗어난 해탈의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극락(極樂)이라고 부른다. 극락은 하늘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깨달은 이가 얻게 되는 즐거움이다. 보통 깨달은 이가 얻게 되는 즐거움을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한다.

열반의 네 가지 덕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첫째, 상(常)은 열반의 경지는 생멸 변천함이 없는 덕(德)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락(樂)은 생사의 고통을 여의어서 무위안락(無爲安樂)한 상태의 덕을 의미한다. 셋째, 아(我)는 망령된 집착심인 아(我)를 여의고 여덟 가지로 자유자재함이 있는 덕을 의미하며, 넷째, 정(淨)은 번뇌의 더러움을 여의고 평안한 청정의 덕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바라보살은 보시의 즐거움이 바로 해탈의 즐거움과 같다고 본문을 통해 일관되게 말한다. 깨달은 아라한이 얻는 해탈의 즐거움은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의 즐거움과 같은 경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중생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고백한다.

자비의 보시가 곧 해탈로 가는 수행이며, 자비의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 바로 해탈의 즐거움이며, 해탈의 맛이라는 것이다.

자비심의 보시는 비유하려고 해도 지극히 광대해서 비유할 것이 없어 넋을 놓아야 하는 경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날마다 좋은날

날마다 좋은 날, 누구나 즐겨 쓰는 말이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벽암록〉6칙에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루는 운문 스님이 대중을 향해 법어(法語)를 하면서 대중에게 묻는다. "보름 이전은 묻지 않겠지만 (十五日 以前不問汝) 보름이후를 한마디로 요약해 일러보라.(十五日 以後 道將 一句來)"

대중이 답이 없자 운문 스님이 스스로 답하길(自代云)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이지."

이쯤해서 사족(蛇足)같겠지만 가볍게 언급할게 있다. 어떤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지나간 허송세월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의 마음 각오에 대해 한마디 일러 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을 날마다 생일날'로 좁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명쾌한 것은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를 물은 것이고 운문 스님의 자답(自答)은 생일날이 아닌 '날마다 좋은 날'이 옳은 해석인 것이다. 중국에서 생일은 그대로 생일(生日)로, 좋은날은 호일(好日)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인생엔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日日是好日'은 '텅 빈 충만'서 비롯

깨닫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살펴보자. 깨닫기 이전엔 일체 모든 것이 변화하여 제행무상 (諸行無常)을 느끼지만, 깨닫고 보면 움직이고 변화 하는 것이 그대로가 아름다워 제행유상(諸行有常)이 되는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이 괴로움 덩어리로 다가오지만 (一切皆苦) 깨닫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즐겁고 아름다우며 소중해지는 일체계락(一切皆樂)이 되는 것이다.

하여, 모든 현상계와 실상의 존재자체에 나(我)라고 내세울 영원한 내가 없어 제법무아(諸法無我)라 믿고 있었지만 깨닫고 보니 두두물물 (頭頭物物)이 나의 분신(分身)이요 산하대지 그대로가 나(我) 아님이 없는 제법유아(諸法有我)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수행의 완성인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오늘의 현장에서 누리는, 당생극락(當生極樂)이 열리는 청정정토(淸淨淨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어제에 미련을 두거나 내일에 기대를 걸지 않는 오늘의 종교다. 지나간 것은 모두 전생(前生)의 일이요 영원한 오늘만이 열려 있어 오늘의 주인공에 이르는 길을 불교의 경전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날마다 좋은 날로 옮겨가보자. 날마다 좋은 날은 누구에게나 희망의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반반 나뉘어 있듯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본시부터 없는 것이다. 사바세계라는 말이 의미하듯 절반은 즐겁고 절반은 괴로운 게 우리네 인생의 바른 대답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배(船)나 버스를 타지 않고도 방안에 앉아서도 심한 멀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어도 때로는 뼈끝까지 아려오는, 타는 목마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돈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윤리와 도덕을 다아 벗어버린 벌거숭이의 상상이 더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탁 트인 자유를 갈망하며 평화로움의 일상을 꿈꾼다. 종교와 신앙 쪽으로 기우는 것도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위해서다. 눈, 귀, 코, 입이 작동하고 있어 끊임없는 욕구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몸과 의식의 분별작용이 소유욕으로 병이 든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버리고 비워야 편안하다. 꾸밈과 조작이 없어야 평화롭다. 집착과 소유욕은 모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날마다 좋은날이 텅 빈 충만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 일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할 일도 없는 사람보다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할 일도 없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지만 할 일 없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을 만들고 일을 꾸미는 작업은 반드시 그림자를 남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빛은 빛인 대로 어둠은 어둠인 대로 자연인의 삶이 아름답다. 행복과 자유는 머묾 없는 머묾이 이뤄져야 날마다 좋은 날이 될 터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